

치 사

제42주년 군승의 날을 축하합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군승들은,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 정신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68년 5명으로 시작한 군승이 현재 육해공군을 합해 140여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69년 육군 중앙법당에서

첫 삽을 든 이래로, 400여 개의 군법당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15만 명에 이르는 군장병 불자들이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한국불교의 미래이자 튼튼한 버팀목이, 바로 우리 군불교입니다.

42주년 군승의 날에 동참해주신 군불자와 내외빈 불자 여러분!

불교의 미래는 인재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종단의 기조는 교육과 포교에 있습니다. 인천의 사표가 되는 스님들을 길러내고, 재가 불자들을

만들어 내는 일은 중요합니다. 특히 불교의 백년대계는 청년불자를 양성하는데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군불교와 군포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군포교가 이웃 종교에 비해 뒤늦게 출발했지만, 지금과 같은 군승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큰 성과가 축적되었으며 앞으로는 훨씬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봉행되고 있는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착공식’은 한국 불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뜻 깊은 불사가 될 것입니다. 시대의 요구와 장병들에게 좀 더 여법한 환경을 제공하는 쾌적한 시설과 구조로 새롭게 탄생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결실을 이룰 이곳에서, 매년 수 만 명의 청년불자를 양성하면 이 분들은 부처님의 법력을 갑옷삼아 국방전력이 증대되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 이 나라의 국력신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중흥의 초석을 다지는
원력으로 발원한 이 거룩한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야 합니다. 막중한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종단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군포교 40여년의 역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모든 역량을 다해 군불교 발전과
호국연무사 신축불사의 원만성취를**

**위해 정진하고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교구장스님 이하 교구 관계자들,
육군훈련소 박성우 소장님과 군 장병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사부대중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년 11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